

도시철도 2호선 10개 구간 부분변경 추진

광주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푸른 길 보존 위해 우회... 건설비용 420억원 추가 예상 환승역, 운전역→상무역으로...차량기지 주변 노면 통과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월 지하 중심형으로 건설방식을 최종 확정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주변 환경이나 주민 편의성 등을 따져 세부적으로 10곳에 대한 부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훼손 논란을 불러온 '푸른길 구간'을 우회하기 위해 1순환도로인 대남대로 중앙 아래로 선로를 깔기로 함에 따라 교통체증 유발 등 사회적 간접비용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4일 5·18 자유공원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옛 사전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10개 구간에 대한 부분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운전저수지 주변 환승역의 경우 기존 1호선 운전역에서 상무역으로 노선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운전역에 비해 상무역이 상업·업무시설이 밀집돼 있어 이용객이 많고 편의성을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세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남구 백운광장~동구 서석동 조선태 치과병원 앞 2.88km의 푸른길 구간은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대신 대남로 도로 중앙 아래로 선로를 깔기로 했다.

푸른길은 2000년 폐선된 경전선 철길에 나무와 꽃 등을 심고 가꾼 길로, 시민 현수운동 등을 통해 심은 3000그루 가까운 나무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푸른길 우회에 따라 추가되는 건설비는 420억원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교통체증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구간은 최대 난공사 구간으로 보강재를 이용한 터널식 '나트(NATM,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일부 구간은 도시철도 1호선이 관통하고 대형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최대 지하 32m까지 굴착하는 난공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량기지 주변의 경우 농로 단절과 소규모 공장과의 저축을 피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지하가 아닌 노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고, 월드컵경기장과 광주역 주변역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경기장과 역방향으로 정거장 위치를 변경하기로 했다.

오지육교 주변은 육교 하부구조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형 일부를 변경하고, 신설 교량을 검토했던 첨단대교와 광

상대교 부분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기존 교량을 활용한 노면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지구 노선도 당초 하천변을 따라 교량을 계획했으나 인근 임방울대로의 도로 여건이 좋은 점을 감안해 노면 구간으로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폭우시 우려되는 토사 유출, 구조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경우 각종 오염방지 시설과 분리발주 등을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 이어 이달 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을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정식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윤정현 광주시장은 지난 2월, 총 길이 41.9km인 2호선을 2조1675억원을 들여 2018년 초 착공, 2025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베트남 정부의 황당한 요구

자국 인권운동가 광주인권상 수상 철회 압력

5·18재단 "수상자 취지 합당...입장 변함 없다"

베트남 정부가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트남 인권운동가에게 대한 수상 결정을 철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시상해오는 동안 광주인권상 수상자 결정에 대해 외국 정부가 공식 외교 통로를 통해 항의의 문서를 접수하거나 수상자 결정 번복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홍산 수지 여사의 경우 수상자 결정 철회 요구가 아닌 출국금지 조치를 했었다.

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1일 광주인권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누엔 단 쿠에(74) 박사는 베트남 국가보안법을 어긴 인물로, 수상자 결정을 번복하지 않다면 양국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결과가 번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베트남 정부는 수상자 결정 번복 요구 외에도 자국 법률을 어긴 범법자를 수상자로 결정한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역시 주장을 펴면서 재단의 수상자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같은 내용의 베트남 정부 공문서는 우리 외교통상부를 거쳐 기념재단에 최근 전달됐다.

하지만 5·18재단과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평생을 베트남의 인권신장에 헌신한 누엔 단 쿠에 박사가 광주인권상의 취지에 합당한 수상자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이같은 뜻을 외교통상부에도 전달했다.

재단 관계자는 "수상자 결정 번복을 요구하는 베트남 정부의 황당한 행태를 보니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과태료 가산금 30만원 감액 복구의원 '물의'

광산구의회는 사기 혐의 조사

광주지역 자치구 의원들이 수십 건에 이르는 부정차위반 과태료 가산금을 감액받거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의 A의원(61)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6년간 A의원에게 부과된 22건의 부정차위반 과태료의 가산금 29만9000원을 감액처리했다.

A의원은 최근까지 22건의 부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북구가 압류 통보를 하자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A의원이 그동안 부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통상적인 감액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가 지난 6년간 A의원에게 발송한 부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부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통지서, 부정차위반과태료 체납

통지서 등 모두 230통이다.

구의회가 22건의 부정차위반을 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230통의 통지서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A의원은 "부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는 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광주광산경찰도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아 고소장이 접수된 광산구의회 B(63)의원을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B의원은 지난해 3월 지인에게서 4억원을 빌렸다가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최근 고소를 당했다. B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린 것은 맞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받은 돈으로, 사기는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돈을 간네게 된 경우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5월 영령 묘비 닦는 새내기 공무원들
광주 북구청 신규 공직자들이 4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5월 영령들의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학 운영권 넘겨주마" 서류 위조

15억 쟁전 '간 큰 20대' 구속 기소

교수 채용 미끼 1억원도 가로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대학 총장 명의로 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15억원,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받아 쟁전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건설업자 B(54)씨에게 순천 청암대 총장 명의로 위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와 지인 명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65

억원을 내면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이 대학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지난해 1월 C(54)씨에게 2000만원, 같은 해 2월 D(47)씨에게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대학 고위 관계자 E(51)씨와 가까운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대학 고위관계자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 처분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공천 현금 제공 혐의

박준영 당선자 측근 기소

영암·무안·신안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측근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4일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

의를 구속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신민당 창당 과정에서 3차례 모두 3억6000만원의 공천 현금을 박 당선인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중 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도 구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채팅앱으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하다 '딱 걸렸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31)씨 등 5명이 경찰에 걸렸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태국 여성 P(23)씨 등 4명을 고용해 지난 2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 고객들을 모집, 건당 10만~15만원의 화대를 받고 목포시내 모텔과 오피스텔

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채팅앱에 젊은 여성의 노출사진을 걸고 남성들을 유인, 여성의 프로필과 화대 등 정보를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유도한 박씨의 행위를 밝힌 경찰은 태국 여성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성매매 남성들의 신원을 추적.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 | | | |
|--|--|---|---|--|
| <p>4층 상가 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p> <p>1층 (커피숍 입점)</p> <p>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p> <p>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p> <p>□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p> <p>010-6670-9800</p> | <p>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p> <p>(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p> <p>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 좋음)</p> <p>□ 감정가 (분할 시) → 56억 □ 용자 → 26억(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 매가 38억</p> <p>010-7384-7800</p> | <p>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p> <p>□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p> <p>□ 사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p> <p>□ 사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p> <p>□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p> <p>□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p> <p>□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아파트 - (6평) 2층 - 전경 좋음, 주변 골목상업,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p> <p>010-6834-4800</p> | <p>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p> <p>□ 전남 장성 삼서 - (토 3492평, 건 5733평) (의료시설) - 1층~3층 (의료시설 전) 오양병원 운영 - 정성 상무대 입구, 대로변 □ 감정가 48억 8천 6백 - 최저가 34억 2천만</p> <p>□ 서구 양동 - (토577평, 건424평) (숙박시설) - 1층 (주차장,기온대)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 접 □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p> <p>□ 서구 화정동 -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티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티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49억 7천</p> <p>□ 동구 동명동 - (토211평, 건608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6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북쪽 인근, 4차선 도로접 □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p> <p>□ 전남 순천 조례동 - (토2332평, 건3960평) (근린시설) - 7층건물 (수영장,시우나,골프장,주택,헬스) 복합 건물 - N(백화점 부근, 대운아파트 단지, 순천C 중상지 대로변) □ 감정가 140억 - 최저가 64억 5천</p> <p>□ 북구 운암동 - (토 66평, 건 194평) (근린시설) - 1층~5층(사무실) 지하(음식점), 6차선도로 접 □ 감정가 7억 4천 - 최저가 7억 4천</p> | <p>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p>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인원분 부동산 경매 관심 인원분 가득채워 달라실분 환영합니다.</p> <p>010-6832-9700</p> |
|--|--|---|---|--|